

재외공관에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CERTIFICATE OF ENTRY & EXIT

2014년 4월 30일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 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재 내외국인 누구나 거주지 구분 없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포함) 민원실이나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즉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증명범위

- 1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영주권자 포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 2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 기록에 대한 사항 ※ 행사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신청인 및 구비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증명발급 수수료 2,000원 상당(수입인지, 미화 2불상당),
 민원24 온라인발급시 무료



공존
共
ZONE

SUMMER THEME WONDERFUL PARTNERS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결혼이민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서 즐기는 느린 자전거

Enjoying slow-pace cycling in Korea



지난 봄,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빠르게 페달을 밟기 바빴는데, 한국의 산과 강을 보면서 여유롭게 타는 자전거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안전하고 여유롭게 한국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즐겨보실래요?

저는 중국 텐진시(天津市)에서 4년 동안 남개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텐진시에서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쓰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에서 쉽게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자전거를 타고, 옷차림 역시 편안합니다. 텐진시에는 사람이 많아 늘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차도만큼이나 넓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수백 대의 자전거를 세워 둘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항상 자전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는 텐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가끔은 막히는 길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를 보면 '이거 봐, 자동차를 사서 뭐하게? 내가 더 빠르잖아.'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뽕뽕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보다 취미로 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화려한 상의와 다리에 딱 붙는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중국만큼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강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자전거주차장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중국과는 다른 풍경에 많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지로 이루어져있는 텐진과는 다르게 한국은 경사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I was a student in National Nankai University in Tianjin, China for 4 years. In the city of Tianjin, bicycles are the main source of transportation. Bicycles can easily be seen on the road particularly during rush hours.

People ride bicycles dressed comfortably, too.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ianjin and the roads are always congested which is the reason why most people prefer to use bicycles as a way of transportation. Given that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ride bicycles, there are dedicated bicycle roads which are as wide as car roads. In the case of hypermarkets, they offer massive bicycle parking lots which can accommodate hundreds of bicycles and such places are filled with bicycles all the time. Sometimes, whenever I see roads congested with cars, I think to myself, 'Look at that. What's the point of buying a car when I can go faster without one?' as I speed along the road.

People who cycle in Korea are dressed in fancy shirts and tights. The dedicated bicycle roads are not as wide as the ones in China and these roads can only be found along the river. I can hardly see any large-sized bicycle parking lot here in Korea.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was really unfamiliar with what I saw as things were different from China. However, unlike Tianjin which is made up of flat lands, the lands in Korea tend to have a lot of steep slopes so one should be extra careful when cycling, that's why I always make sure that I wear protective gears for safety whenever I cycle.

Last Spring, my friend and I cycled Chuncheon on a trip. The landscapes that I saw were beautiful and peaceful. I am planning to take another bicycle trip this summer as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enjoy the scenic beauties of Korea.



Seoulism Written by 왕하이쉬(중국) | 왕하이쉬 씨는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국학과 석사 과정에 있다. 이번 여름에는 국제협력처 Global Frontier와 Korea Frontier에 지원하여 일본과 부산에서 문화 탐방과 학교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존중과 화합!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 <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5월 20일이 되면 재한외국인과 공존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 '세계인의 날'이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도 그 뜻을 기리며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잇따른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취소하고, 포상 수여식과 이민자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으로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규모는 간소화되었지만 상호 존중과 화합, 그리고 진솔한 소통이라는 '세계인의 날'의 의미가 퇴색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가족의 행복과 화합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계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주여성들의 체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과 상담 및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 안전·인권보호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共Zone> 독자 여러분께서도 다문화가정이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무근

Respect and
Harmonization!
Let us revive the
meaning of
'Together Day'

● Greetings to all readers! The 20th of May of this year marked the 7th Together Day, an annual festival held on every 20th of May to share the joy of coexistence with foreigners in Korea. In remembrance of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day, we had prepared a ceremony and various cultural events. Unfortunately, however, reflecting the wave of condolences across the nation prompted by a series of accidents happened in Korea, we decided to cancel the ceremony and cultural events, leaving only an awards ceremony and an expert forum to discuss immigration policy to be held. Although the size of the event was smaller than those of previous years, the meaning of Together Day - mutual respect, harmonization, and sincere communication - remained the same.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commend the dedication of marriage immigrants who have worked hard for the happiness and unity of thei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has been providing marriage immigrants with step-by-step Korean Language courses at early stage of their settlement. We are also offering policy support to help stable settlement and stay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s well. In addition, we are channeling all our efforts in many different ways to build solid foundation for stable lives, provide safety, and protect human rights of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 would like to ask for continuous interest and support from all the readers to help multicultural families take firm root in Korea, which will lead to the true integration of our society. Thanks you.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Han Moo-geun



2014 SUMMER No.34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COVER STORY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인연
다니엘라 쉐카(독일) 씨와 섀택 하이릿티(캄보디아) 씨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선센터에서의 템플스테이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파트너입니다.



CONTENTS

- 02 IT'S SEOULISM 한국에서 즐기는 느린 자전거
- 04 EDITOR'S MESSAGE 존중과 화합!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함께 꿈꾸는 희망찬 내일, 결혼이민자
- 08 THEME SITE 결혼이민자 데일리템플스테이 현장
- 12 THEME GUIDE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개정안
- 16 THEME INTERVIEW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채장희 원장 & 이타티아나 씨
-
- 20 한글티움 교실 일산다문화교육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
- 22 미션! 파서블 소피아 씨의 대중교통 이용기
- 24 나의 취업성공기 청주여자교도소 김나탈리아 씨
- 26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사립 대안 초등학교 '지구촌학교'
- 28 K-Food 특공대 들깨 녹두 삼계탕 맛 체험
- 30 공감발전소 다문화극단 '샐러드'
-
- 34 출입국 25시 관광1번지 만드는 숨은 공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38 우리동네 보물탐방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기행
- 44 다정다감 그대 행복은 친절을 타고
- 46 전문가 기고 아시아의 국제결혼, 국가 간 협력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 48 출입국 NEWS 2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출입국 Q&A 국제결혼 관련 궁금증 해결
- 51 BLUE POST 독자가 보낸 편지 &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계간 <共ZONE> 2014 여름호 통권 제34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4년 7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WONDERFUL PARTNERS

함께 꿈꾸는 희망찬 내일,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결혼이민자!
〈共ZONE〉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을 체험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고, 건전한 국제 결혼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봅니다.
또한 다문화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채장희 원장과 농촌에서 가족의 행복을 찾은 이타티아나 씨를 만나 결혼이민자와 함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새 시대 농촌 이야기를 〈共ZONE〉 독자들에게 들려드립니다.



THEME SITE 결혼이민자 데일리템플스테이 | **THEME GUIDE**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개정안

THEME INTERVIEW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채장희 원장 & 이타티아나 씨



국제선센터에서 보낸 어느 멋진 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거리마다 색색의 연등이 한 발 앞서 축하의 뜻을 전하는 4월,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데일리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템플이라고 하면 인적 드문 산 속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선센터는 서울 도심 속에 있어 불교문화를 궁금해하는 외국인들 또한 발걸음하기 쉽다. 베트남, 캄보디아,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이들이 체험한 '한국식 불교문화'란 어떤 것일까? 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사찰음식 만들기 절 문화를 맛보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는 서울외국인출입국관리소와 가까워 오가는 길에 높이 솟은 사찰 건물을 한번쯤 눈여겨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저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혹은 '뭘 하는 곳이지?'하는 의문도 가졌을 터. 국제선센터는 내·외국인이 한국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 템플스테이, 선문화 강좌, 사찰요리 전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국제선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절 문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첫 번째 시간은 '사찰음식 만들기'. 육류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사찰요리는 채소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차릴 수 있어 이주여성들의 손맛을 정련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특별히 사찰요리를 연구하는 정관스님께서 먼 곳에서 발걸음을 했다. 이날 배워 볼 요리는 '우영표고버섯 강정'과 '곰취쌈밥'으로 매콤달콤한 맛과 새콤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메뉴들이다. 우영표고버섯 강정은 우영과 버섯을 바삭하게 튀겨내는 것이 포인트. 어느새 요리실에는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와 채소를 썰는 칼질 소리가 리듬이 되어 울려 퍼진다. 한쪽에서는 강정을 맛있게 무쳐낼 소스를 만들고 있다. 간장과 고추장, 고춧가루가 주 재료이므로 매운 맛이 강하지만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물엿을 넣어 달콤함을 곁들일 수 있다. 곰취쌈밥의 '곰취'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물로 흔치 않은 만큼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맛이 특징이다. 이 곰취를 물에 데쳐 밥을 싸고, 된장 소스를 곁들이면 곰취쌈밥이 푹푹 완성된다. 갓 지은 밥을 조물조물 주물러 간을 하는 것이 뜨거울 만도 한데 몇 번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능숙하게 밥을 싸는 모습이 역시 베테랑 주부답다. 그렇게 직접 만든 사찰 음식을 나누어 먹으니 맛있다는 서로 주고받는 칭찬에 마음도 든든해진다.

우영표고버섯 강정 만들기

재료: 표고버섯, 전분, 후추, 소금, 설탕, 참기름, 식용유, 파프리카, 우영, 양파
양념 재료: 고추장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꿀 1큰술, 설탕 1큰술, 간장 1작은술, 마늘 다진 것 3/1큰술

요리 과정

- ① 양파와 파프리카, 우영, 표고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② 썰어둔 표고버섯을 소금, 후추, 참기름, 설탕으로 밑간을 한 후 전분에 버무리다. ③ ②를 전분에 한 번 더 버무리 예열해 둔 기름에 튀겨낸다.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 재료를 넣어 섞는다. ⑤ 양념이 끓으면 ①에서 썰어 둔 채소를 넣어 볶는다. ⑥ 채소가 익은 뒤 표고버섯 튀김을 넣어 함께 버무리다.



국제선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절 문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사찰음식으로 주부 9단에 도전!

웅티후잉레 씨(한국, 31)
한국에 온지 7년된 주부라서 한국생활이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사찰음식은 정말 새롭네요! 평소에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새 메뉴를 배우게 되어서 좋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연등 만들기와 참선 절 문화를 수행하다

부처님 오시는 날을 가장 먼저 알리는 연등. 불교에서는 왜 연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연꽃은 높이나 연못의 진흙에서 자라지만, 한 점 더러움 없이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내기 때문이라. 스님은 이러한 연꽃의 속성이 불교의 뜻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며 연등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 도전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초보자용 종이컵 연등만들기'로 알록달록 저마다의 색을 뽑내는 종이 연꽃잎의 밑동에 살짝 풀을 칠하고 종이 컵의 겉면에 한 잎씩 붙여나가는 간단한 과정이다. 그러나 집중하느라 얼마간 숨을 멈추기도 하는 모습이 설명만큼 쉬운 작업이 아님을 알려준다. 특히 꽃잎을 반쯤 포개어 붙이는 것이 풍성한 연꽃을 만드는 비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본연의 성품을 잃지 말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연꽃 같은 여인들이 되길 바란다'는 스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두 손에는 어여쁜 종이 연꽃을, 마음속에는 연꽃의 고귀한 정신을 피워냈으리라. 불교를 수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참선'이다. 불교에서는 꾸준한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반대쪽 허벅지 깊숙이 올리고 반대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척추와 목을 곧게 펴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허끝을



입천장에 살며시 댄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결가부좌'는 명상을 위한 최선의 자세인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건강 증진 등의 효과도 크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일 텐데도 눈을 지그시 감고 상념을 비워내려 집중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온화한 빛이 감돈다. 오늘날만큼 먼 곳에서 생활하느라 늘 짐처럼 지니고 있었던 긴장을 내려놓고 내면의 고요에 젖어든다. 이들이 만난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

불교문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나영 씨(한국, 31)
2003년에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귀화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체험하면서 불교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좋은 체험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이민자 데일리 템플스테이 일정	
10:00	국제선센터 도착 (불교문화 오리엔테이션)
10:20	Making Temple Food (사찰음식 만들기)
12:00	Lunch (직접 만든 사찰음식 점심공양)
13:00	Woodblock Printing (인경 체험)
13:30	Making Lotus Lantern (연등 만들기와 연등회의 의미)
14:00	Seon Meditation (참선)
14:30	Teatime with Sunim (스님과의 차담 및 회향)

국제선센터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는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센터로 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체험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명상교실', '템플스테이', 비행기 환승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환승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다. 전화 02)2650-2200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11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

Revision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Marriage Migrant Visa Application for a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

국제결혼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할 때 내국민간 결혼에 비해 많은 부가조건과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법무부도 2013년 10월 10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를 개정하여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International marriages are not only a personal issue but have come to the force as a social and international issue. In most countries, when a citizen sponsors his/her foreign spouse subsequent to marriage, additional criteria must be met and supplemental verification processes undertaken compared to that of a marriage with a fellow citizen. Under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revised on Oct. 10th,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n amendment to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marriage migrant visa (F-6) application, and thos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applied starting April 1st, 2014 following a six-month grace period. Let us fully look into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marriage migrant visa (F-6) that are currently in effect.

법무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였다.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더라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共ZONE>과 함께 달라진 주요 정책과 발급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trengthened the existing evaluation criteria for a marriage migrant visa (F-6) application starting April 1st, 2014. The reinforced criteria aim to promote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s and help marriage migrants securely settle in Korea upon entering the country by allowing the issuance of a marriage migrant visa (F-6) only after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by both the visa applicant and the sponsor.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case such criteria are not met, even after the marriage is registered, the marriage migrant may not be able to enter Korea. Let us take a closer look into the revised policies and visa evaluation criteria along with the <共ZONE>.

01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 요건
다문화가정 내 언어장벽은 가장 큰 문제로, 부부간 의사소통 불능은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결혼이민자의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다.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된다. 또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되며, 2014년 3월 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된다.

01 Requirement for Korean Language Capability of a Foreign Spouse
Language barriers can be a significant problem in multicultural families. For example, communication problems can bring

about conflict between a married couple, and can also be the cause for a domestic violence. In an attempt to prevent the disbanding of a family caused by communication problems and to support the adaptation of marriage migrants to Korean society, the issuance of a visa has become more difficult beginning April 1st, 2014 if there is a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a married couple. In principle, a marriage migrant visa (F-6) applicant should possess a basic level of Korean speaking capabilities. However, if a marriage migrant cannot speak Korean but the marriage migrant and his/her Korean spouse can communicate well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 visa can be issued. A couple can be exempt from the Korean language requirement if there are children born between the married couple in question. Additionally, a visa applicant that registers his/her marriage in Korea by March 31st, 2014 will be exempt from the Korean language capability requirement for the year until December 31st, 2014.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 등

Documents to prove Korean language capabilities

- Certificate of TOPIK equivalent to Level 1 or higher
- Certificate demonstrating the completion of a basic level of Korean language course in a designated education center
- Documents confirming the acquisition of a Korean language related degree in a university and/or graduate school
- Documents proving that the marriage migrant is an ethnic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 Immigration records proving that the marriage migrant resided in Korea for a successive duration of a year or longer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489만 4804원	1913만 9299원	2348만 3808원	2782만 8316원	3217만 2811원

02 초청자의 소득 및 주거요건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한편 초청인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즉, 초청인은 본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지가 있어야 하며, 고시원, 모텔과 같이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02 Income and Residency Requirements for a Sponsor

For the purposes of a stable settlement of the marriage migrant upon entering the country, a sponsor's capability to secure a certain level of income and residential space is evaluated. A visa is issued if the income requirement (before taxes) of a sponsor is met based on a standard of the number of persons per household as announced annually by the Minister of Justice. However, such income requirement is not applicable if there are children born between the sponsor and his/her foreign spouse.

Additionally, the sponsor must also have a residential space where his/her foreign spouse can continuously reside with the sponsor upon entering Korea. In other words, the space must be owned or rented under the name of the sponsor or a member of his/her immediate family living with him/her as represent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in the case that the residential space is not considered an adequate space for a married couple to live in such as a rental study room ('gosiwon' in Korean) or a motel, the visa application may be rejected.

03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강화

결혼이민자를 빈번하게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한다. 또한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국적을 취득한 이유가 혼인피해 또는 자녀양육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03 Strengthening of Limitations on Sponsoring a Foreign Spouse

Sponsoring a foreign spouse is limited to once every five years (previously allowing 2 sponsorships within a 5 year period) in order to prevent frequent and inappropriate cases of sponsorship. Additionally, in order to prevent cases of the marriage migrant getting a divorce after he/she acquires Korean nationality and then proceeding to sponsor another foreigner, sponsorship of another foreigner is restricted to 3 years after the Korean nationality is acquired. However, if the marriage migrant acquired the Korean nationality through falsified marriages or reasons pertaining to child rearing, this restriction is not applicable.

04 초청자 양식 변경

4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의 초청장에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나 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인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 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

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04 Changes to the Sponsorship Form

Please keep in mind that the Korean national must complete the revised form starting April 1st, 2014. Questions on the form must be honestly answered based on objective facts. In particular, even if the marriage was through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if dis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hip or introduction is provided or falsified documents submitted, the visa evaluation may be disapproved and/or the sponsor may be penalized according to the relevant statute.

Additionally, a foreigner applying for a F-6 visa must submit the personal details form. The form includes past immigration

history, whether the foreigner has changed his/her name before, and information about his/her family. Questions on this form, just like the sponsorship form, must be answered honestly on the objective facts. If answers to the questions on the form are omitted or falsified information is provided, the visa evaluation process for the application may be delayed or disapproved. 🚫

필수 기본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주거요건 입증서류, 의사소통 관련 입증서류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인 경우에는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및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함

VISA NEWS

F-6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 관련 유의사항 숙지하세요!

- ①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등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숙고하여야 한다.
- ②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 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예: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의 입국이 늦어지거나 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Notes Concerning th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for F-6 Visa Application

- ① Following the strengthening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6 visa application, a foreign spouse may not be able to enter Korea even upon the registration of marriage. Therefore, before a sponsor decides to marry a foreign spouse introduced through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it should be ensured that such criteria (ex: Korean language capabilities of a foreign spouse) required for F-6 visa application are met.
- ② In particular, sponsors should be cautious of any brokers who advertise by saying it is possible to meet the conditions (ex: completion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urse, etc.) required for the visa applic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marriage according to existing practices.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if a visa is not issued and/or application rejected after the marriage is registered, there can be disadvantages such as the marriage migrant being unable to enter Korea or being delayed from entering Korea.
- ① Cùng với việc nâng cao tiêu chuẩn xem xét cấp visa cho người nhập cư do kết hôn, mặc dù đã đăng ký kết hôn nhưng vợ/ ch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vẫn không thể nhập cảnh. Vì vậy,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nhờ công ty môi giới kết hôn v.v giới thiệu gặp gỡ đối tượng và làm thủ tục đăng ký kết hôn, cần phải tìm hiểu lại về việc vợ/ ch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có đáp ứng được các điều kiện cấp visa kết hôn như yêu cầu về trình độ tiếng Hàn của vợ/chồng hay không.
- ② Yêu cầu lưu ý đặc biệt về việc doanh nghiệp quảng cáo trong thời gian ngắn từ khi đăng ký kết hôn đến khi thành công sẽ có được điều kiện cấp visa [như, hoàn thành khóa đào tạo tiếng Hàn v.v), đồng thời cũng phải hết sức lưu ý vì có thể phát sinh những bất lợi như việc nhập cảnh của vợ/chồng sẽ bị kéo dài muộn hơn hoặc không thể nhập cảnh do không được cấp visa sau khi đăng ký kết hôn.

다문화 농가가 웃어야 우리 농촌이 행복해집니다

2010년 상주시에 26년 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동네에는 떠들썩하게 큰 잔치가 벌어졌다. 다문화가정이 아니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현재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 수는 1만 1,856명, 자녀 수는 1만 1,574명으로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수를 합치면 도내 작은 군의 인구수와 맞먹을 정도다. 이제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이 곧 우리 농촌의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채장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과 이타티아나 씨가 목소리를 높인다.



다문화 영농후계자의 요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매년 품질 좋은 사과를 내놓는 삼성농원. 일조량이 좋으면서 강수량이 적어 농사 짓기에 좋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한국의 기후가 너무 습해 병해충 피해를 자주 입는 것 같으며 하소연하는 이타티아나 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바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다. 도내 수많은 다문화 농가가 농업기술원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 및 관리를 받고 있다고 귀뜸한다.

채장희 |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사 경험이 많지 않거나 설령 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후나 사정에 맞게 영농기술을 새로 교육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영농기술은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남편이나 가족을 통한

기술 습득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영농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아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2011년 23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농촌다문화가정 영농지도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다문화농가의 효율적인 영농지도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가 농가를 찾아가 농사기술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다음 농업기술원에서 맞춤형 지도도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지요. 이밖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다문화농가 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이 미래 전문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타티아나 | 6년 전에 남편과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경상북도 영주(풍기)로 귀농을 왔어요. 직장생활 중에도 틈틈이 농촌지역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농사에 대한 관심을 키워온 남편이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때부터 1만 6,500㎡ 규모로 사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볼 때랑은 달리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힘든 점이 많았어요. 남편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영농기술을 배웠고, 저도 농업기술센터의 다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농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채장희 | 우리 농촌의 10년 후를 내다보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차세대 영농후계자라는 점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들도 많아질 겁니다.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고, 젊은 인력으로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이들은 차별화 된 '경쟁력'이 될 수 있지요. 또 농사가 아닌 지역사회 내 일용직 노동 근무의 비중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복지정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일거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채장희 원장은

2009년부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수시로 농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 중심의 연구 지도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열성적인 농학 박사이자 2013년에는 수필가로도 등단한 작가이기도 하다.



이타티아나 씨(우즈베키스탄)는

현재 두 아이의 어머니인 6년 전 경북 영주(풍기)로 귀농해 삼성농원에서 영끌어 가는 사과를 보며 행복에 빠진 농사꾼이 되었다. 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 다문화분과와 사회적기업 '다문화희망공동체' 회원으로 다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 농가가 젊은 농업인력의 새로운 대안이며 활력 있는 농촌, 농업의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그들이 아닌 '우리'로 아름다운 공존의식을 확산해 선진농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채장희** 원장의 지론이다.



농업기술원이 다문화 지원을 자처하는 이유

농업기술원은 영농기술 지도 외에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다문화정착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개 국어로 발간된 어린이 이유식과 간식이야기 책자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채장희 |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이유식이나 간식 등 어린이 육아에 필요한 식생활 정보를 배울 기회나 방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말,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어린이 이유식과 간식이야기'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초보 엄마들이 농가에서 재배하거나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우리 재료를 활용해 한국 엄마들이 예부터 먹던 '율란'이나 '참쌀부꾸미' 등의 전통간식을 결혼이주여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표현했으며, 그녀들의 모국 간식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그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점을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타티아나 |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가난해서' 한국에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살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서 처음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문화를 향한 한국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나 문

화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 때문에 돈이 생겨도 행복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내 아이에게 큰 약점이 된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그럴 때 농업기술원의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농가를 찾아가 아세안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무용 시연 등 적극적으로 다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다문화 친구들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주는 농업기술원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웃 형님과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발일을 도와주며 사이 좋게 지내요.

활력 있는 농촌의 새로운 대안

고령화, 공동화 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 바로 농촌의 다문화가정이다. 이들의 젊음이 농업인력의 새로운 대안이며 활력 있는 농촌, 농업의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그들이 아닌 '우리'로 아름다운 공존의식을 확산해 선진농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채** 원장의 지론이다.

채장희 |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려는 의욕과 열의가 얼마나 뜨거운 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이기적인 자세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는 순수한 마음자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들여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타티아나 | 현재 다문화 교육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들만 모아 놓고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행사같이 농촌에 사는 주부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많았으면 해요. 또 시부모님과 남편들도 다문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의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처럼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을 실시해 우리 같은 이주여성이 가족들로부터 먼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행복한 다문화 농촌을 만드는 것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장희 | 그래요. 공존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경북 농업기술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회화 수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수첩에 메모해가며 언어와 현지 문화에 대해 학구열을 불 태우고 있습니다. 배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기반이 있을 때, 공감도 되고 교감도 되는 것이죠. 다만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관련 부처가 많음에도 콘트롤 타워가 없어서 종합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영세한 다문화 농가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농지 규모화 사업 등 국가의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농촌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겁니다. ☺

농업인과 함께하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빠르게 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연구의 현장화와 실용화 기술보급,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우량품종 육성, 유전자원 보존,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연구,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기술, 토종작물의 기능성 연구, 전통음식의 전승 및 표준화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다양한 다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동체 농산물가공사업장 조성
경북 인증 사회적기업 '우리랑'과 함께 양파 박피포장, 당근 박피 및 세절포장, 마늘 분말 등 작업이 가능 사업장을 영주시에 조성했다.



다문화가정 영농봉사단 운영
영농지원팀, 생활편의팀 등 기술원 4개팀 직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매월 1~2회 다문화농가를 찾아가 영농기술지도와 농기계수리 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멘토멘티 결연
도내 생활개선회원과 결혼이민여성 이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올해 300쌍이 영농과 생활기술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멘토링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생활기술교육 실시
웃음치료사, 아동요리사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 교육과 취득을 도왔으며, 지난해 40명이 아동요리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어 실력 쑥쑥! 음식 주문도 척척!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의 어느 날, 일산다문화교육센터를 찾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 들어서자 사각사각 연필소리만이 가득하다. 수강생들은 숨까지 죽이고 선생님이 칠판에 쓴 수업내용을 옮겨 적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한다. 무더운 여름도 이들의 한국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 앞에서는 한풀 꺾인 듯 하다.

글 안채린 사진 정우철

발 디딜 틈 없는 인기강좌의 비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말하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읽고 쓰는 것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간판도 잘 읽을 수 있어요.”

법무부 외국인사회통합센터 고양·파주의 거점운영기관인 일산다문화교육센터는 늘 찾아오는 외국인들로 북적인다. 교통편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한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덕분에 멀리서도 한국어 공부를 위해 일산다문화교육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김선영 대표는 말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맡고 있는 이미영 선생님의 반은 1단계부터 함께한 학생들이 반 이상일 정도로 사이가 돈독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과 한 단어라도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다.

한국으로 1994년에 건너와 한국에 온지 20년이 넘어가는 이란의 문센 씨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수강하고 있다. 일이 바빠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야 시간이 생겨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연스럽게 한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고 싶어요.”

이제는 한국식당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어휘를 배우는 날. 한국음식에서 주로 쓰이는 동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눈이 수업에 대한 열기로 반짝인다.

“비벼먹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비빔밥을 먹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재료를 섞어서 먹는 것을 비벼먹는다고 해요.”

이해를 하지 못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선생님의 보충설명이 이어진다. 옆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의 도움이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독특한 음식을 먹는 방법, 식재료 등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문화 등을 공부한 후에는 오늘 배운 표현을 직접 쓰며 손에 익히는 시간.

뼈뼉뼈뼉 어색한 손글씨로 써내려 가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이제는 한국 식당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웃는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오늘도 한 뼘 자라고 있다. 🍴

이날 수업의 한국어 배우기
음식을 먹는 방법 (How to eat food)

- 뿌리다 [Ppurida]
곳곳에 흩어지도록 던지거나 떨어지게 하다.
Throw or drop things over an area
- 말아먹다 [Malamukda]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어먹다.
Put rice or noodles inside the soup

버스와 지하철도 자신있게 갈아탈 수 있어요!

복잡한 선으로 얽혀있는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쉽게 알 수 없는 버스는 소피아(21, 캄보디아) 씨에게 두려움이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출할 때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볼 수는 없는 일! 과연 소피아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제시간에 약속장소로 도착할 수 있을까?

잘했어요 ★★★★★

소피아 씨의 도전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역 이름도 직접 읽고 갈아타는 곳도 찾으면서 저절로 한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와보는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하철에서도 많이 헤매고 버스도 잘못 탔지만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다음 번에는 실수 없이 잘 도착할 거예요!”



거미줄 같은 지하철도 문제 없어요!

교통카드를 사며 소피아 씨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지하철 노선도를 살핀다. 한국에 온 뒤 남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유명한 곳을 관광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 혼자 집을 나선 적은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어지럽게 얽혀있는 지하철은 노선도를 읽기에도 힘이 든다. 그러나 차근차근 한글을 떠올리며 손으로 노선도를 따라간다. 가까운 길은 남편이 일러준 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지하철에 탑승해서도 혹시나 내릴 역을 놓칠까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역을 확인하길 반복한다.

어려운 환승, 한번에 성공?

고향인 캄보디아에서는 교통수단이 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버스와 지하철이 신기하기만 하다는 소피아 씨.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적용되는 환승 제도가 가장 좋다고 말한다. 이동을 할 때 편할 뿐만 아니라 잘못 탑승하였을 때에도 30분 내에 세 번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길이 익숙하지 않은 소피아 씨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더욱 유용하다고.

한 번 본 길은 잘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길눈이 밝은 편이지만 초행길에 긴장해서일까, 도중에 버스를 잘못 타고 말았다.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소피아 씨의 얼굴이 울상이다. 과연 소피아 씨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결혼이민자 소피아 씨의 대중교통 이용기



● **일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과 전철 역사 내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하고 지하철 요금과 함께 500원의 보증금을 투입하면 구입할 수 있고, 일반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보증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역사 내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외국인수용자들의 입과 귀가 되어

조곤조곤한 말투에 수줍은 미소에서는 쉽게 그녀의 직업을 떠올릴 수 없다. 그러나 제복을 갖춰 입고 수용자들에게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 나온다. 교정공무원을 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보람되다는 그녀의 미소에서 일에 대한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제복 위에 적힌 긴 이름이 이제는 제법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 실수투성이였다는 김나탈리아 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처음을 회상하며 수줍게 웃는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후에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나탈리아 씨는 남편의 권유로 교정공무원에 도전하게 되었다.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대신 남편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

“교정학을 공부할 때 남편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면접을 볼 때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모의 면접과 체력 시험도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덜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교도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나탈리아 씨는 바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배치되어 외국인수용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수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럴 때 도움을 준 것은 선배들과 동기들이었다.

수용자들의 입과 귀가 되어

모든 것이 서툴던 업무도 이제는 3년 차에 접어들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수용자와의 대화시간은 나탈리아 씨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다.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수감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낀다.

외국인수용자들은 한국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가 다른 이들과 생활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모국어로 자신의 의



견을 말할 수 있는 상대는 나탈리아 씨 밖에 없다. 나탈리아 씨도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수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얼마 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외국인수용자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조사수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어를 쓰던 수용자는 조사과정에서 입을 다물어버렸는데, 제가 나서서 말을 걸고 노력을 기울여 수용자가 마음을 열고 다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의사소통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는 딸들이 있어 더욱 뿌듯하다는 나탈리아 씨.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외국인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미소가 여름 햇살처럼 밝다. ☀

Know-how on successful employment

Set specific dreams If we have a goal that we are really yearning for, we obviously strive for its accomplishment. Although finding a job in Korea is quite frustrating for many reasons, you would encounter lots of difficulties. But we can achieve any goal if we steadfastly put all our efforts and focus on its realization.

If you have anything you are not sure of, ask! If you have anything you are not sure of, without any hesitations, go head! Ask to people around you.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answers by asking about things you do not know, you will gather information on even more extensive range of things you haven't thought of and will end up putting in more efforts to attain even more.



다문화 사립 대안 초등학교 지구촌학교

나의 꿈은 학교에서 자랍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수록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더욱 높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세계를 무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곳, 바로 '지구촌학교'이다.

“국사가 가장 재미있어요!”

한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모두가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배우니 수업 시간도 지루하지 않죠. 저는 사회 과목을 좋아하는데, 한국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고려사를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선생님께 여쭙보기도 해요. 척척 설명해주는 선생님 덕분에 사회가 더 재미있어요!
조유민 (12)



편견과 다름을 극복하는 자신감

쉬는 시간이 되면 왠지 낯선 것이 다른 학교와 다르지 않지만, 수업종이 울리고도 활기찬 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구촌학교만의 방과후 프로그램, 특별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서툰 한국어나 다른 피부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워주는 활동의 하나로 시작된 특별활동은 지구촌학교만의 특별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촌학교는 '모든 사람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존엄성을 갖는다'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사)지구촌사랑나눔이 설립한 다문화교육 관련 사립 대안 초등학교다.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아 이곳에서 초등교육을 수료한 뒤 일반 중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 지구촌학교에는 현재 총 15개국에서 온 114명의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 간의 한국어능력 수준의 차이가 크고, 민족·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진단검사와 수학진단검사를 통해 각각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학년을 배치하고 있다.

마음까지 어우르는 수업

지구촌학교는 다른 위탁교육시설과는 달리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어와 사회 등 기본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졸업생들이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였을 때 교과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이나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 활동 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바로 방과후 악기수업. 한국전력에서 후원 받은 악기와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온 강사진으로 학생 한 명당 한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곧 있을 학기말 발표회 준비로 분주하게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실력이 하루하루 늘어가는데 대견하기만 한 선생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다. ☺

입학 절차

<p>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매년 12월 중 선발 및 수시모집</p> <p>STEP 1</p>	<p>홈페이지 내 입학신청서 다운받아 작성</p> <p>STEP 2</p>	<p>제출서류 첨부해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p> <p>STEP 3</p>	<p>입학결정 즉시 수업 참여</p> <p>STEP 4</p>
----------------------------------------------------------	-------------------------------------------	-----------------------------------------------	------------------------------------

문의 02) 6910-1004 주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89(오류동 223-5) 지구촌학교
정보 지구촌학교(<http://www.obamaschool.net>)

입학 시 필요서류

- 지구촌학교 입학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등본이 없는 경우) 학생과 부모의 여권 사본 1매
- (등본이 없는 경우)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경제상황 증빙 (저소득 지원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 학생의 최근 사진 1장 (여권용)
- 전 학교 생활기록부 (국내, 국외)
- 건강기록부
- 입학사약서
- 소개서

한국인의 지혜와 맛 삼계탕 최고예요!

‘닭은 언제나 옳다’, ‘1인 1닭’ 등 닭 요리에 대한 한국인의 무한한 애정은 유행어로도 번지고 있다. 바삭한 튀김 옷과 양념으로 매일 밤 우리를 유혹하는 치킨, 당면을 품은 달콤한 짬뽕, 매콤해서 한 번, 씹에 잘 어울려서 또 한 번, 두 번 반하게 하는 닭갈비까지. 닭 요리는 무궁무진하지만, 여름에는 역시 삼계탕이 으뜸이다. 웬지 삼계탕을 먹지 않으면 여름 나기가 영 시원치 않다. 두 유학생도 삼계탕으로 체력 충전에 나섰다.



완벽한 보양식 ‘들깨 녹두 삼계탕’

들깨는 비타민 E와 F, DHA가 풍부하여 변비와 피부미용, 기력 회복에 효능이 있으며 녹두는 열을 가라앉혀준다. ‘들깨 녹두 삼계탕’은 미용, 기력회복, 소화활동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최고의 보양식인 셈. 기호에 따라 구수한 맛을 더해주는 들깨를 기호에 따라 첨가하여 먹어도 좋다. 요즘은 마트에서 삼계탕 재료를 세트로도 판매하고 있으니 직접 만들어 더위에 지친 몸의 기운을 되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



“삼계탕, 지난 여름에 먹어 봤어요!” 작년에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다는 중국학생 유훙 씨와 베트남 학생 마이타오 씨에게 삼계탕은 낯설지 않다. ‘닭 한 마리가 목욕하는 것 같다’ 등 삼계탕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반응은 참으로 다양한데, 다행히도 두 사람은 삼계탕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애호가들이다. 오골계 삼계탕, 옷 삼계탕, 낙지 삼계탕 등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 삼계탕. 오늘 두 사람은 ‘들깨 녹두 삼계탕’을 맛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더운 여름에 이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의아했는데 이제는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마이타오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삼계탕을 알게 되었다. 유훙 씨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친구들에게 삼계탕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 땀이 짝 빠지니까 다 먹고 나면 시원해져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지 대단해요!”라며 삼계탕에 담긴 조상의 지혜까지 생각하는 깊은 면모를 보이기도.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두자면 첫 번째, 뽀얀 국물을 먼저 맛본다. 두 번째, 닭고기의 살을 발라 먹는다. 가슴살, 다리, 부위별로 다른 식감과 맛을 음미하면 좋다. 세 번째, 닭의 몸통 안에서 익은 찹쌀과 녹두를 국물에 풀어 죽으로 먹는다. 이렇게 푹배기를 비우고 나자,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라며 감탄을 연발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삼계탕집 사장님도 흐뭇해 했다.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체력을 잃기 쉬운 여름, 들깨 녹두 삼계탕은 과연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



유훙 (중국, 28세)

별점 ★★★★★

닭고기가 쫄깃쫄깃하고, 인삼과도 잘 조화를 이루네요. 인삼이 조금 쓰지만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좋아요. 삼계탕이 다른 반찬들과 잘 어울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The chicken was very chewy and taste great, and was in perfect harmony with the ginseng mixed with. Although ginseng is a bit bitter, it is quite good for health. Side dishes served together with the Samgyetang made it taste so wonderful.



마이타오 (베트남, 23세)

별점 ★★★★☆

고기와 밥이 함께 들어있어 든든해요. 잘 먹었습니다. 닭을 우린 국물 맛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남기는 것이 아쉬워요.

It was a complete dish that contains both chicken and rice. I thoroughly enjoyed i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 chicken soup was a bit thicker. But it was regrettable that I couldn't finish all that food just me alone.



다양한 이들이 모여 전하는 샐러드처럼 상큼한 이야기

국내 최초 다문화극단 '샐러드'는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각자의 고유한 맛을 잃지 않고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의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예술이 가진 힘에 공감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연극이다.

무대 위에서 보는 희망의 내일

2009년 창단하여 올해로 5년째인 '샐러드'는 2005년 '이주노동자 방송국'에서 출발하여 2009년 샐러드 방송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언어에 대한 이민자들의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극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복지와 노동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문화와 예술은 변방의 것이었죠.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연극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문화극장 샐러드룸 운영, 이주민 공연예술아카데미 사업, 이주민 예술가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설립 10년 만인 2014년 5월 16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전문 사회적 기업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었다.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박경주 대표는 힘주어 말한다.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박경주 대표는 힘주어 말한다.



긴장된 첫 경험도 지금은 좋은 추억이죠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성과라는 것은 뻔한 공치사가 아니다. 셀러드의 단원들은 직접 연극을 만들고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도맡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관객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단원들과 가족들의 응원 덕에 더 힘을 내서 무대에 오르게 되었죠.”

필리핀 출신의 로나 씨가 긴장되었던 첫 무대를 떠올리자, 옆에서 박경주 대표가 이번에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연극이 있다고 살짝 귀띔을 해준다. 부끄러워하면서도 필리핀의 전래동화를 각색한 내용을 설명하는 로나 씨의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란지엔화 씨와 글라이자, 오로나 씨도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변방에 있던 이주민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또한 '셀러드'의 목표 중 하나이다. 언어의 장벽을 벗어나 다중언어로 만든 연극, 무언극, 무용극 등 창작의 틀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공감에서 찾는 아름다운 공생

'셀러드'는 지난 해 연극 '수크라이'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경주 대표의 실제 경험이 녹아있기도 한 이 연극은 다문화,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담았다. 단원들에게도 이 연극은 각별하다. 본인들

이 직접 연출과 스태프를 맡아 끝까지 함께한 공연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연극에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였는데, 연극을 본 학생과 선생님들이 특히 많은 공감을 해 주었죠. 연극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공감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한다. 작은 이해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상대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 커다란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

'셀러드'에 놀러오세요!

저희는 현재 '아시아미트아시아'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공동체가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알리는 연중기획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몰랐던 이웃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연예술아카데미에서 직접 강의도 수강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셀러드를 방문해주세요! 셀러드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한국 최초 다문화극단 '셀러드' 박경주 대표



Immigration Now

2014 SUMMER

출입국 25시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동네 보물탐방 |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기행

다정다감 그대 | 행복은 친절을 타고

전문가 기고 | 국제결혼, 국가 간 협력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출입국 NEWS | 2분기 소식

출입국 Q&A | 국제결혼 관련 궁금증 해결



일일 특파원
손이리나 씨(우즈베키스탄 동포)
“사시사철 내·외국인들로 붐비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동포 3세인데 12년 전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경상도 사나이와 결혼해서 아들 둘,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외모적으로는 한국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결혼이민자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이민자네트워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문화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共ZONE>의 일일특파원이 되어 여러분들께서 오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완벽한 출입국행정을 펼치고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1번지 만드는 숨은 공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운데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소 중 하나다. 체류, 국적 등 일반적인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를 찾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몰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인관광객의 출입국심사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AM 11:00

외국인 폭증에 덩달아 바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특별함이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게다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다 보니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바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항이나 항만은 별도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시 건입동 본소에서 민원업무와 재한외국인의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업무, 난민·국적·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본소를 두어 출입국심사 및 선박검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관리과장님께서서는 “과거에는 항공기 및 선박 입·출항이 이렇게까지 증가할지 예상하지 못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직원들은 몸이 고달파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엽보금 계장님께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니 2013년 출·입국자는 하루 평균 3,846명에 이르고, 국제선 항공기 1만 2,112대와 선박 630척이 입·출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출·입국자는 55.9%, 항공기는 40.8%, 선박은 23.8%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려 632%가 늘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 사는 제가 봐도 정말 많은 외국인이 제주도를 찾는군요.

PM 13:30

줄 서지 않고 출입국심사를 받는 방법!

제주공항에서는 줄잡아 하루 평균 30여 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내리고 뜹니다. 지방공항으로서는 정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직원들이 제주공항에 상주하며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3교대로 출입국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공항에 직항노선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관광 목적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30일 동안 제주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입국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출·입국 과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짜증스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김재호 계장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MRP)을 소지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본소 또는 제주공항 본소(3층)에서 사전에 얼굴·지문·여권정보 등을 등록한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17세 이상, 90일 이내 출국자)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방법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원이 쏟아져 들어오면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1초가 아까운 관광객들로서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다는 불만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크루즈 선박이 제주항으로 출항하기 전 기항지로 담당직원들을 보내 해당 크루즈 선박에 승선하여 선상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일정이 짧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또는 배를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전용통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자동신분확인시스템을 통해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동이나 여권·비자의 위조 또는 변조를 3~4초 내로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제주도를 찾는 이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과를 살펴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화이팅! 🙌

PM 15:00

짧은 일정의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이번에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있는 제주항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면 2,000~4,000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배가 정박해있는 기간 동안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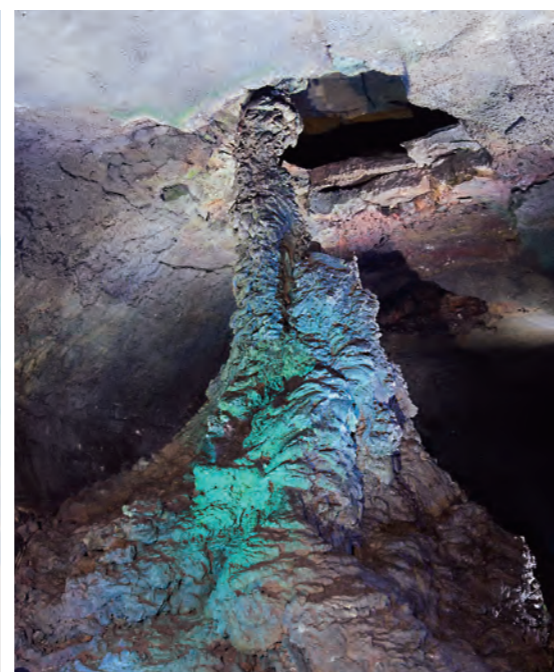
“제주도가 하와이에 버금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배상업 소장님께서서는 “미국 하와이는 한 해에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면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도 제주도가 하와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광특구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배상업 소장님과 ‘1등 출입국맨’이라는 사명감으로 외국인을 배려하는 직원 여러분들을 보니 제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든든합니다.



One of UNESCO's official treasure troves for the world's 7 billion **JEJU ISLAND**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제주는 신비롭고 아름답다. 하늘과 바다, 한라산과 오름은 너무도 아름다워 카메라만 들이대면 멋진 사진이 나온다. 볼 것이 하도 많아 몇 번을 다녀와도 봐야할 것이 또 남아있는 제주도. 태초의 신비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거친 풍파와 싸우며 살아온 섬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비경을 찾아 떠나본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삼다·삼무의 섬 제주도

Jeju, the island of 3 plenties and 3 scar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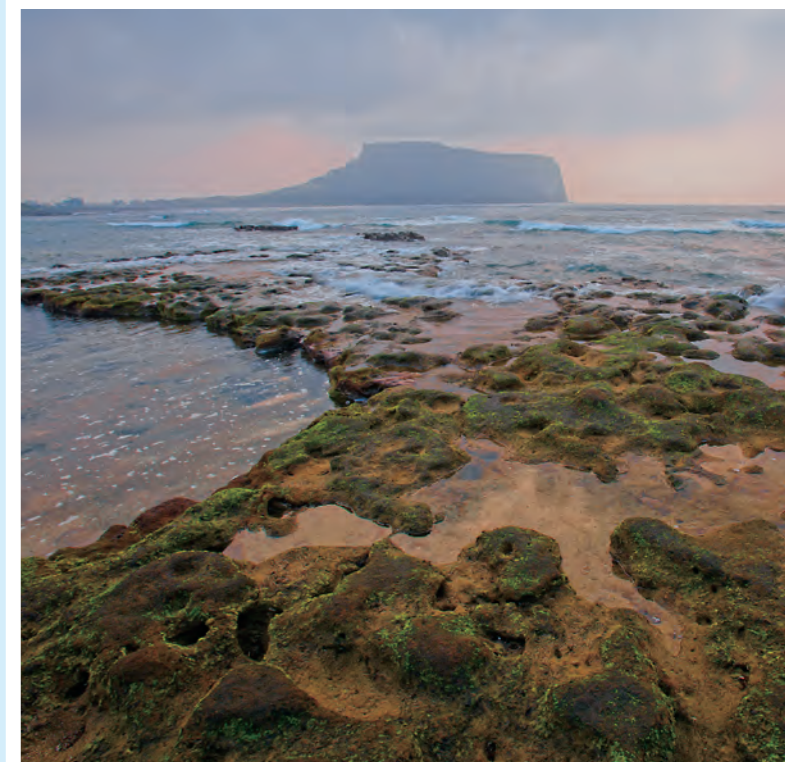
Jeju is Korea's largest island. Mt. Halla and its streams, home to a wealth of flora and fauna, the parasitic cones surrounding the crater, and the turquoise seas. Jeju island, with its truly blessed natural beauty, began gaining popularity as a honeymoon destination since the 1960s, designated a UNESCO biosphere reserve in 2002, then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2007, followed by designation as a geo park in 2010, the island is an official treasure trove of the 7 billion-strong population of the world, recognized not once but thrice by UNESCO.

Jeju has traditionally been nicknamed the island of three plenties for its abundance in rocks, wind, and women. This nickname is based on the fact that Jeju, located in the middle of a typhoon corridor, is prone to heavy winds, is littered with rocks as one might expect from a volcanic island, and, is where women were always numerous than men, because so many of the men here would die at sea. Jeju was also referred to traditionally as the island of three scarcities.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제주의 명소, 성산 일출봉

Key attraction visited by 3 million every year

The 'Seongsan Sunrise Peak' located at the easternmost edge of Jeju island is famous for the awesome views of the morning sunrise. At the top of the Seongsan Sunrise Peak, which towers vertically for some 180m, there is a giant crater 600m across, 1,705m around, and 90m deep. Inside, it feels like a lost world hidden inside a monolithic fort. The Seongsan Sunrise Peak, since its registration with the UNESCO as a natural heritage site, has become a fixture in the itineraries of the more than 3 million tourists who visit each year. Panting and heaving for breath on your way up, you will be greeted by strange and magical rock formations that will help you forget what a hard time you are having. Once on the top, looking down on the Seopjikoji, the rolling waves breaking along the Gwangchigi beach, the pastoral vistas of Jeju island and the picturesque sight of U-do, you won't want to come back down.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 섭지코지에서 즐기는 낭만

The Seopjikoji cape, filming site of TV drama 'All In'

South of the Seongsan Sunrise Peak is the Seopjikoji cape, a site that gained popularity as the filming site for the hit TV drama 'All In'. The cape was secluded and unknown before it became the site for the drama, but is now not only a popular filming destination but a tourist attraction as well. The nunnery set used in the drama, and the 'All In house' have been opened to the eager public. 'Koji' means 'cape' in the Jeju dialect. Seopjikoji has high geological value, so much that the site is a candidate for designation as a world geo park. From the parking lot at Seopjikoji, you can look down on the women divers (haenyeo) going about their business, and, walking along the path and up the stairs, perched upon a sheer coastal cliff against a backdrop of green pastures pummeled by the wind, stands a lonely white lighthouse overlooking the cobalt waters. Along the coastal cliffs under the lighthouse is the 'Angel Boulder (Seondol)', which is reminiscent of the sad story of love between the son of the king of the seas and an angel from the heavens.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주는 최고의 피서지, 만장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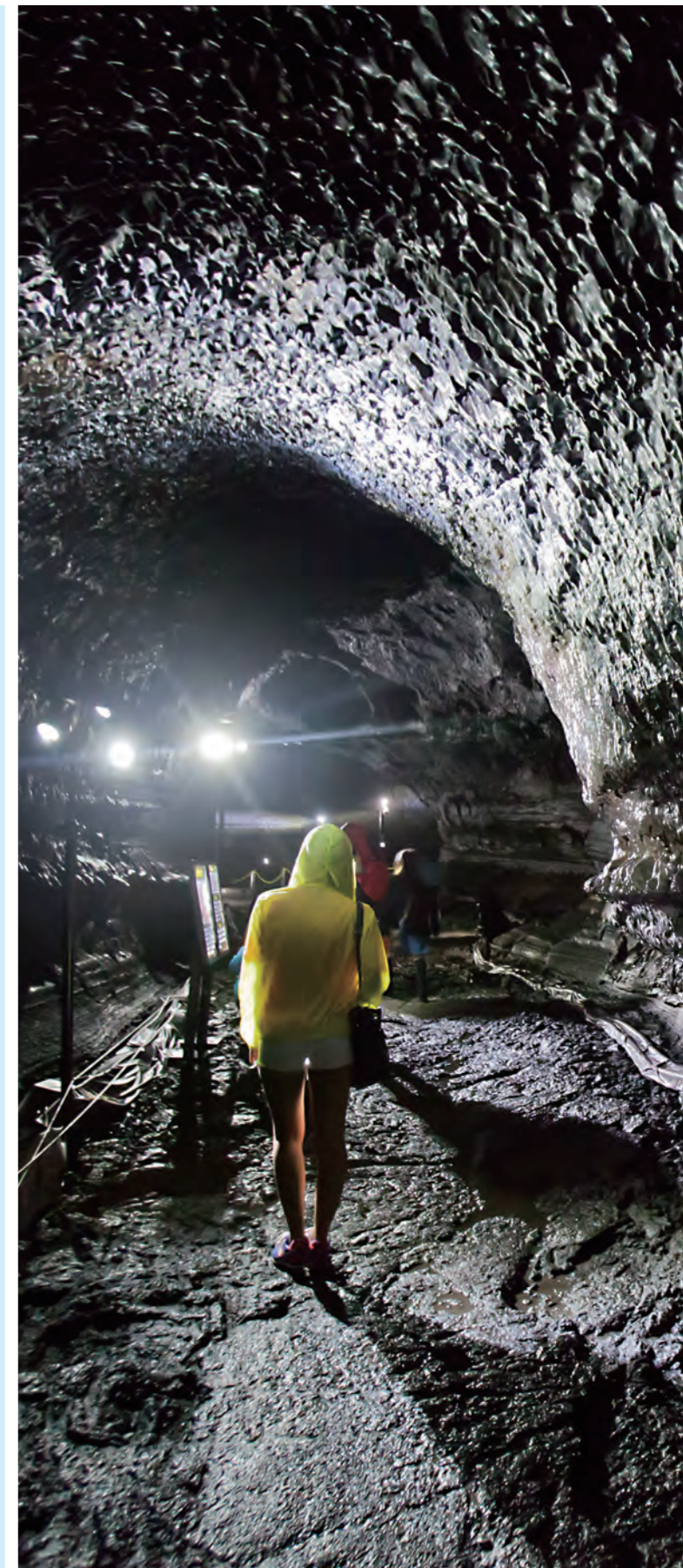
Manjang-gul, the ultimate summer destination

The 'Manjang-gul,' officially register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d world geo park, are magma caves created along the coast by lava flowing into the ocean off Mt. Halla in one of her previous eruptions. The entire cave complex used to be one, connected to the Gimnyeong Cave located farther to the north, but it is said a later lava flow divided the complex into two separate caves. The Manjang-gul, stretching some 7.4km, are the fourth longest magma caves in the world. Inside the caves, visitors can view the world's largest stone pillar (7.6m high), stalactites, stalagmites, flowstones, and boulders, all preserved beautifully, making the site not just a valuable academic destination but a beauty to behold as well. The caves stay at around 12~14°C no matter how hot it is outside. Tourists flock to the caves in the summer, they say.

거문오름에서 만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경

The Geomun Oreum, a sight unique to Jeju

Jeju is a land of the oreum (parasitic cones). The hundreds of parasitic cones littering the island, along with Mt. Halla, have created a truly unique sight. At the 'Geomun Oreum' (456.6m),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visitors can explore the flora and fauna that populate the magma caves and crater. The vertical cave of 35m is especially intriguing, as volcanic caves usually tend to develop parallel to the ground. From the viewing deck, you can look down on the horseshoe-shaped crater whose northeastern face has been blown away, and the other oreums that pockmark the foothills of Mt. Halla. The whole scene is magically peaceful. The magma spewing out of the Geomun Oreum flowed 14km north to the coast, leaving in its wake the Manjang-gul, Gimnyeong-gul, and Yongcheon caves. The world natural heritage center at the entrance to the Geomun Oreum offers 4D virtual reality tours of the Yongcheon caves, the Yeongsil Valley at Mt. Halla, and the Bijarim forest, also known as the 'millennial forest,' among Jeju's other natural attractions.





달이 머무는 마을, 환상적인 월정리 해변

Fantastic beach at Woljeong-li, village of the moon

The Woljeong-li beach located on the northeastern edge of Jeju island is a truly magnificent place, with blindingly white sandy beaches, transparent emerald waters, and giant windmills. On your way to the beach at Woljeong-li, you can see Jeju's haenyeo diver women going about their business, diving in groups. You'd be lucky to come across the diver women, whose number are dwindling with each passing year.

It is still far from crowded, though, and is a great place to rest the mind and body. The pretty, unique cafes that line the beach are a great place to unwind and take in the scenery. The views of the sea out of the cafe windows are such a sight, like the whole scene is a painting, and the windows frames. The name Woljeong-li means 'village where the moon rests'. When the namesake moon is at its largest it seems to linger over the crescent-shaped beach. Visitors can witness the white full moon setting to the west, followed by the red sun rising from the east. The special sight of the rays of the sun penetrating the spaces between the clouds in majestic sunrises over the ocean horizon is reserved for the keenest of explorers who are willing to climb to the top of the Darangshi or Yong-noon oreums before the crack of dawn.

"Peaceful island makes me smile"

"Kyrgyzstan is a landlocked country without any seas. In Jeju, I have been working hard, taking in as much of the beauty of the ocean as I can, and embracing a wealth of memories." "The view of the Seongsan Sunrise Peak from Aquaplanet is just not something you can get used to. It's always new, always beautiful." Rina (left) and Oksana (right) who are managers of the performing team at Aquaplanet Jeju, say it was a stroke of good luck that brought them to the beautiful isle of Jeju.

Rina [Kyrgyzstan] & Oksana [Ukraine]



The Jeju Olle Trail, Course 7 Map



The Jeju Olle Trail, a Jeju adventure reserved for hikers

THE JEJU OLLE TRAIL, THE WORLD'S MOST BEAUTIFUL AND MOST TRANQUIL PATH

If traveling from point to point in a car isn't your thing, why not connect the dots on foot? The Jeju Olle Trail is a hiking adventure reserved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walk. Olle is a word in the Jeju dialect that refers to a narrow alley leading from one's front gate to the village road. The Jeju Olle Trail, which, for the most part, stretches along the coast, was partially opened in 2007, in which paths that had been disconnected, forgotten or lost were restored. In September 2012, 21 official paths that take visitors clean around Jeju island, along with 5 unofficial paths that cross into the mountains and over into the islands of Jeju (Udo, Gapa-do, Chuja-do), were opened, completing the 430km-long Jeju Olle Trail. The reason it took all of 5 years to complete the trail was none other than meticulous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avoiding artificial methods as much as possible. The Jeju Olle Trail brings visitors closer to the seas and oreums, past the tranquil villages and volcanic basalt walls. Walking the trail, the world's most beautiful and peaceful path, journeyers find themselves one with nature.

COURSE 7, THE MOST POPULAR SECTION OF THE JEJU OLLE TRAIL

The most popular section of the Jeju Olle Trail is the 14.2km-long course 7, stretching from Waedolgae on the Seogwipo city coast to Wolpyeong village. 'Waedolgae,' from where course 7 begins and takes visitors on an indulgent stroll through the beauty of Jeju's coast, was a filming site for popular Korean drama 'Dae Jang Geum.' Naturally, the site is frequented not just by Korean visitors from tourists from China and Japan as well. Some ways along the path is the 'Dombenang trail,' which is littered with cliffs, strange rock formations, and lush evergreen pines. The view over the seas around Seogwipo city, complete with a small uninhabited island, is a work of art. Further along the path are panoramas of lava columns and basalt sculptures carved by nature and time. A mailbox is installed mid-way along course 7. Visitors can mail themselves postcards, which are delivered to them exactly 1 year later.

행복은 친절을 타고

민원인의 만족도 100%를 위해 오늘도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민원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업무 속 생겨나는 사연의 수만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늘어났다. 오늘은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문을 두드렸을까?

전화를 타고 흐르는 친절 바이러스

얼마 전 게임 개발사를 운영하는 분께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외 개발자 채용을 위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인 분들과의 상담시,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민원인이 유선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에도 친절하게 해외 채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통해 친절을 전파합니다.

황규애 상담사(1345콜센터)



웃음으로 힘이 나는 '스마일 맨'
얼마 전 비자 신청을 위해 함께 사무소를 찾아주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에는 늘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고,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한국말이 서툰 분들이라 혹시나 오해가 있지는 않을까 곁에서 서류를 챙겨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미소는 만국공통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들의 업무를 처리해드리는 저는, 춘천출입국사무소의 '스마일 맨'입니다!
손형창 반장(춘천출입국사무소)

여름 더위도 미소 한 번에 사르르 없어져요
저는 현재 등록외국인의 체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하여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돕고 있는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업무 처리에 어려운 일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면 늘 제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며칠 전,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노동자가 비자 신청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에도 모르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옆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비자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미소에 더운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김은정 반장(구미출장소)



작은 친절이 커다란 만족으로!
얼마 전 외국인근로자 한 분이 강제출국자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동보호 조치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사업주께서는 정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근로자가 강제출국을 하게 되자 당황하셔서 저희 보호소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였을 그 분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알아보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공단과 연결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민원인들에게는 커다란 만족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즐겁게 일합니다!
김희동 반장(청주외국인보호소)



아시아의 국제결혼 국가 간 협력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국제결혼은 사적 영역인 혼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의 국제결혼 이주체제는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어서 결혼이주자의 수용국과 송출국 간 이민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Although international marriage is a very personal decision-making, it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ies. In specific, unstable marriage migration system in Asia on the border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mak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arriage migration with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be critical.

1980년대 이래로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확장되는 '동아시아형 국제결혼', 이른바 '상업적 중개를 통한 속성 국제결혼'이 결혼 당사자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결혼당사자 신상정보의 불투명성, 인권침해, 결혼의 진정성 확보의 어려움, 결혼이주자의 가족 위기와 해체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주자의 출신국과 수용국 양쪽 모두에서는 관련법과 제도 고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 결혼이주자의 주요 수용국인 대만은 2007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차별금지조항과 가정폭력금지조항을 삽입하였고, 한국도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결혼이주자의 주요 송출국인 필리핀의 <우편신부주문금지법>이나 베트남의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법령>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아시아 국제결혼을 향해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

그럼에도 아시아에서 상업적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 위에 놓여 있다. 상업적 결혼중개를 '허용하는 수용국'과 그것을 '불법으로 보는 송출국' 간 법제의 근본적 괴리 때문이다. 게다가 수용국의 결혼이주체제는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고, 송출국은 상업적 중개를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허용과 불허를 반복한다. 현실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가 수용국과 송출국 국민들에게 상존하는 한, 국가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인 국제결혼을 규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아시아의 국제결혼

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이 사적 선택의 영역을 넘어 안정적인 이주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제결혼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이주하고 배우자의 모국에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국과 송출국은 상호 책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국가 간 이민협력의 지점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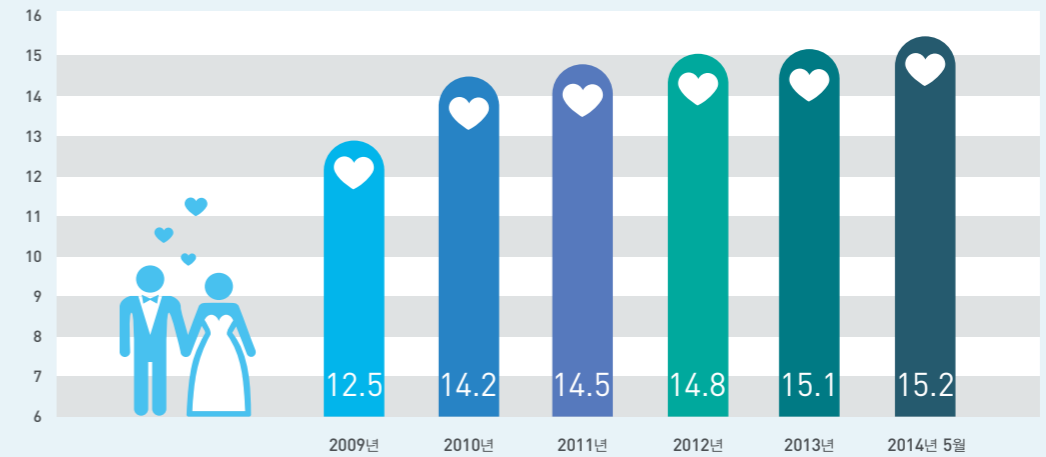
'수용국의 책임성' 강조하는 것이 한국 스타일

최근 한국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은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국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해볼 수 있다. 결혼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속성 국제결혼이 수용국과 송출국 양쪽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시행령은 부부간 최소한의 의사소통,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국민의 가족부양능력,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횟수 제한, 그리고 귀화한 결혼이주자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 밖에도 2009년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국내에 입국하는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출입국관련 지식, 기초생활 정보, 기초법질서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과 2011년부터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국민이 배우자의 국가와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도 '수용국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수용국과 송출국 간 적극적인 협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아시아의 국제결혼 이주체제' 그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테

국내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추이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5월호 단위 만 명



면, 수용국은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송출국은 자국법 내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업적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해외에서 동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개업체가 동 시행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지 송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중개업체의 현지법 위반에 대해서 송출국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한 국내법만으로 중개업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은 사적 영역인 혼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 등 다른 유형의 이주자들과 달리, 결혼이주자는 가족을 형성하고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주의 파급효과가 결혼이주자의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에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국제결혼에 관한 문제는 사적 영역을 넘어 국가 간 이민협력의 필요성을 명백히 제기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5월호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포함)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	캄보디아	몽골	기타
전체	152,375	61,704	25,573	40,857	12,424	10,763	2,655	4,784	2,370	16,818
여자	129,945	49,624	18,042	40,326	11,214	10,459	2,589	4,769	2,293	8,671
남자	22,430	12,080	7,531	531	1,210	304	66	15	77	8,147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1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특별귀화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황교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he Minister of Justice Meets the Descendants of the Men of National Merit of Independence

Hwang Gyo-an, the Minister of Justice, met the descendants of the Men of National Merit of Independence who had obtain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Special Naturalization scheme at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on 11 April and ha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live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of Korea. In the presence of 12 descendants of the Men of National Merit of Independence including the granddaughter of an independence activist Yang Ki-tak and the granddaughter of an independent activist Lee Myeong-soon, the minister stated “we will offer various public services and full support for the settlement and stable lives of the descendants of the Men of National Merit of Independence in Korea.”

외국인정책위원회, 201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 확대, 외국인의 사회 참여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한 이민자의 사회참여 지원 환경 조성, 사회불안요인 해결을 위한 효율적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finalize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2014 Immigration Policy

The Ministry of Justice finalized a pan-governmental 「2014 Immi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Plan」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government ministries and civilian experts. The reviewed and finalized plans include expans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to facilitate economy, creation of an immigrant-friendly environment through the support and reward for immigrants' social participation, establishment of efficient immigration and residence management system to ease social anxiety, and streamlining of unnecessary report procedure.

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식



지난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 포상은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7명과 법무부장관표창 7명 등 총 17명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금년에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은 40여 년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인술을 펼쳐 다른 이민자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벨기에 출신의 마리 헬렌 브라쉬르(68세, the President of the Jeonjinsang Clinic 전진상의원 원장) 씨가 수상하였다. 그밖에 숙명여대 다

문화통합연구소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베트남 출신 자원봉사자 웬디응옥여임 씨 등이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Awarding Ceremony in celebration of the 7th Together Day

The awarding ceremony for Men of Merit was held at the main conference room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Gwacheon Government Complex on 20 May in celebration of Together Day. 3 Citations from the President, 7 Citations from the Prime Minister, and 7 Citations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were given to the awardees. The newly designated ‘This year's immigrant award (Citation from the President)’ was given to Marie Helen Brasseur (68, President of the Jeonjinsang Clinic) from Belgium who has set an exemplary model to other immigrant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by offering medical service to the underprivileged for the past 40 year. Sookmyung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received the Citation from the Prime Minister and Nguyen Thi Ngoc Diem, a volunteer from Vietnam, received the Citat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 관련 전시회 개최



지난 6월 17일 서울 시민청에서 ‘2014년 세계 난민의 날 전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더크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이견태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을 비롯하여 난민인정자 옴비토나씨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전시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난민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법무부는 6월 20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서를 체

결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념행사를 하였고, 난민법 시행 1주년이 7월 1일에는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Exhibition on Refugees held to celebrate ‘World Refugee Day’

On 17 June, the commemoration event for ‘2014 World Refugee Day Exhibition’ was held at Seoul Citizens Hall. Commissioner Han Moo-geun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presentative Dirk Hebecker of UNHCR Korea and Ambassador Lee Gun-tae participated in the event. Jeong Woo-seong, an actor and Honorary Advocate of UNHCR, and Yiombi Thona, a recognized refugee, also joined the ceremony. The exhibition was hel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to promote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our society in tackling refugee-related issues. In celebration of ‘World Refugee Day’,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signed an MOU with Inha Law School on 20 June, held a ceremony at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organized an academic symposium on 1 July for the 1st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Law.

화제의 인물

‘올해의 이민자상’ 최초 수상자 벨기에 브라쉬르 씨



벨기에 출신 마리 헬렌 브라쉬르 전진상의원 원장이 올해 신설된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최초 수상하였다. 그녀는 42년간 총 39만 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하였으며, 생명 존중의 정신과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통한 이민자 및 국민에게 삶의 본보기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This Year's Immigrant Award’ The First Awardee – Ms. Brasseur

Marie Helen Brasseur, the president of Junjinsang Clinic from Belgium, received ‘This Year's Immigrant Award’ which is a newly-designated presidential citation. For the forty-two years since she started voluntary medical service, she has provided 390,000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with free medical service, also setting an example not only for immigrants but also for Korean citizens through the voluntary medical service based on her devotion and respect for life.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출입국 Q&A

출입국 Q&A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혹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시거나 하이코리아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내실 곳 : zee@theseven.co.kr

Q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소득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I would like to sponsor my foreign spouse. How can I prove that I have adequate means of financial support?

A 초청인이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초청인이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재산(예금,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가액의 5%를 소득으로 인정)

If you have an earned income, please submit a certificate of income amount (issu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 invoice of withholding tax, a proof of employment, etc. Additionally, if you have a business income, submit a certificate of income amount and a certificate for business registration. However, if you do not meet the income requirement but have property under your name (i.e. deposits, stocks, bonds, real estate, etc), the property can be converted to be approved as your income. Therefore, documents proving that your property meets the requirement should be sufficiently submitted (5% of the property can be converted to be approved as the income).

Q 결혼비자 발급요건 중 한국어 구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초급과정을 이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정된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Marriage migrants must complete a basic level of Korean language course in a designated education center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Korean language capability. where are the designated education centers?

A 법무부에서는 세종학당 전체(52개국 118개소) 및 7개 한국교육원을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초급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정현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426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signated all King Sejong Institutes (118 institutes in 52 countries) and 7 Korean Education Centers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s. In the case that marriage migrants complete a basic level of Korean language course in these designated education centers, the requirement for the Korean language capability is considered to be met. Please refer to the "Notice" (No. 4266) on the Homepage of the MOJ (www.moj.go.kr)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education centers.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Send us your precious opinion so 〈共ZONE〉 can become more profitable and various.

응웬 티 투이 Nguyen Thi Thuy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베트남

늘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共ZONE〉! 이번 호에서는 '나의 취업성공기'의 DJ 위엔 티 하미 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서 하미 씨의 조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 꼭 취업을 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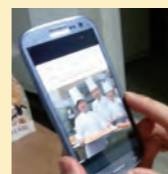
<共ZONE>luôn luôn cung cấp những thông tin tốt lành! Trong số lần này chúng ta đã nghe câu chuyện thú vị của DJ Nguyễn Thị Hà Mi về "Vũ khí xin việc thành công của tôi". Tôi cũng muốn chuẩn bị cẩn thận để xin việc!

안느 클레어 Anne Clair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프랑스

통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워 보여서 늘 포기했어요. 그러나 누엔 티 가이 씨가 통장을 개설한 이야기를 만화로 보니 이해도 쉽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共ZONE〉! 늘 감사합니다!

J'ai pensé que j'aurais besoin de créer un compte, toujours difficile de renoncer à me fit sursauter. Toutefois, compte Nguyen Ti Gai a ouvert dans cette histoire est facile à comprendre avec des tours comiques, je suis convaincu que semble être derrière elle. 〈共ZONE〉! Merci toujours!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김원희 님(서울 구로구)



아는 분들이 〈共ZONE〉 불호에 나오게 되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았어요. 기사에 동영상이 볼 수 있어서 재미가 배가 되네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共ZONE〉을 볼 수 있는 앱, 정말 멋집니다.

김선민 Kim Seon-min 광주시 북구 중흥동 • 한국

이번 호 〈共ZONE〉에서는 재외동포에 관한 특집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새로운 삶을 꿈꾸는 재외동포들이 있는데 제빵 교육 등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어야겠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만든 빵도 직접 먹어보고 싶을 만큼 맛있어 보이네요.

In this issue of the 〈共ZONE〉, special articles on the Koreans residing abroad were very impressive. I know of many Koreans living abroad dreaming of pursuing a new life. I think I'll have to introduce to you some interesting programs like baking courses. Breads made by those bakers look so delicious.

조나단 미첼 Jonathan Mitchell 대전광역시 서구 분동 • 미국

제가 사는 대전이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많아 봄이 다가기 전에 얼른 다녀와 봄을 즐겨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보니 더욱 인상 깊네요.

The article on Daejeon, the city I live in, was interesting to read. There are many places I have not been to yet, so I would like to visit some of them before the spring ends. All looked more impressive with the beautiful pictures.

앱북 다운 받고, 선물 받고!

재한외국인의 한국생활 도우미, 〈共ZONE〉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사진 보내실 곳 : zee@theseven.co.kr



ios용



Android용